



"나는 새에게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할 수 없다"

뜻: 사람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어서,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자유 · 의지 · 개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나	는	새	에	게	여	기	앉	아	라
저	기	앉	아	라	할	수	없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나	는	새	에	게	여	기	앉	아	라
저	기	앉	아	라	할	수	없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나] [새] [여] [앉] [할] [수] [없] [다]

웹에서 보기

